

(Zechariah 3:1-10; 4:1-14; 9:9-17; 14:1-9; Matthew 21:1-11)

Tim Cope, an Australian adventurer, travelled 10,000 kilometres on horseback, from one end of what was once the Mongolian Empire to the other. The Mongolian Empire, spanning from Mongolia to Hungary, was the largest empire ever established by one man, Ghengis Khan. It was founded by barbarism and held together by fear. Through his ruthlessness and single-mindedness, Ghengis Khan built an enormous empire. His final words to his sons were: "With Heaven's aid I have conquered for you a huge empire. But my life was too short to achieve the conquest of the world. That is left for you". Although his sons did expand the empire it never covered the whole earth. But in his prophecy, Zechariah speaks of a kingdom that will – God's kingdom. 호주의 탐험가 Tim Cope 는 한때 몽고 제국이었던 곳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말을 타고 10,000 km 를 여행했습니다. 몽고에서 헝가리까지 펼쳐지는 몽고 제국은 칭기즈칸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진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는 야만적인 방식으로 세워졌고 공포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잔인함과 일편단심으로 칭기즈칸은 엄청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너희들을 위해 엄청난 제국을 정복했다. 그러나 세상 전부를 정복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짧았다. 그건 너희들 몫이다". 비록 그의 아들들이 제국을 확장시키기는 했지만 결코 전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라는 그의 예언에서 전 세계를 정복할 왕국 –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Zechariah was a contemporary of Haggai whom we looked at last week. His prophecy is dated from the eighth month of the second year of Darius (King of Persia from 521-486 BC) – that is from October 520 BC, a date which coincided with the resumption of work on the rebuilt temple (Ezra 4:24). God had promised his servant David to provide a king to rule his people forever, on David's throne, to make them a blessing to the world. But would that promise ever be fulfilled through the group of exiles (God's remnant) who had returned to Jerusalem to rebuild the temple and, as we saw from Haggai chapter 1 last week, seemed to be doing anything but putting God first?

스가라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 보았던 학개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다리오 왕 (기원전 521-486 페르시아의 왕) 제 이년 여덟째 달부터 시작됩니다 – 이는 기원전 520 년 10 월부터인데, 성전 재건축이 다시 시작된 날과 일치합니다 (에스라 4:24).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에게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주실 것이며, 다윗의 통치하에 그들을 전 세계에 축복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난 주 우리가 학개 1 장에서 보았듯이, 성전 재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전혀 하나님을 우선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망명자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Like Haggai, Zechariah has much to say about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but his concern is wider than Haggai's. Whereas Haggai deals with the resumption of the building and the blessings that will flow to God's people as a result of their obedience, Zechariah is more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God's kingdom and rule, which the temple signifies.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라는 성전 재건축에 대해 할 말이 많았지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학개보다 광범위했습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그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축복을 다루고 있다면, 스가라는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왕국의 건설과 통치에 보다 관심을 갖습니다.

The movement of the book can be seen in 2 key verses in the first and last chapters. In chapter 1 the Lord God promises: "I will return to Jerusalem with mercy, and there my house will be rebuilt. And the measuring line will be stretched out over Jerusalem" (1:16). The implications of this verse are far-reaching. Although the remnant has returned, at this stage Yahweh, God himself, has not yet returned. The returned exiles are reminded by Zechariah that they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God will inhabit any temple they build. In chapters 8-11 of Ezekiel, the prophet made that clear when, after being confronted with the wickedness that was taking place within the temple, he saw the Lord God physically leave the temple and move off to the East. (Ezekiel 10:18; 11:22-23). In Zechariah, however, the returned exiles are being promised that if they turn from their sin and rebuild the temple, God will mercifully return to it and live among them. This promise sets the program for the whole book which concerns the building of the temple and the way the people must live with God in their midst. 스가라 서의 움직임은 그 첫 장과 마지막 장의 주요 2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멍줄이 쳐지리라" (1:16). 이 절에서 암시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왔지만,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스가라는 망명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는 성전에 거하실 것임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에스겔 8-11 장에서 이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을 대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 가시는 것을 보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스겔 10:18; 11:22-23). 하지만 스가라에서 돌아온 망명자들은 그들이 죄에서

(Zechariah 3:1-10; 4:1-14; 9:9-17; 14:1-9; Matthew 21:1-11)

돌이켜 신전을 재건축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임을 약속 받습니다. 이 약속은 성전의 건축과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에 관한 스가랴서 전체에 틀을 정해줍니다.

Zechariah ends his prophecy with a much broader perspective than just Israel's future. In his final chapter we see that God's rule, symbolised by the temple, is a rule not just for the people of Jerusalem (and what was once Judah), but a rule which will take in the whole earth: "The Lord will be king over the whole earth. On that day there will be one Lord, and his name the only name" (14:9). The scope of this vision is one which ultimately takes us to the heart of Zechariah's message, but also beyond it, as he points us throughout this prophecy to the one who will make the vision reality – the Branch, Zion's King, namely the Lord Jesus Christ.

스가랴는 단지 이스라엘의 미래보다 훨씬 광범위한 관점으로 그의 예언을 마칩니다. 그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상징화된 하나님의 통치가 단지 예루살렘 (그리고 한때 유다였던 곳)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치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4:9). 이 환상의 범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스가랴 메시지의 핵심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스가랴가 이 예언서 전체를 통해 가리키고 있듯이 이 환상을 현실로 만드실 분 – 시온의 왕이요, 나뭇가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 Zechariah chapters 1-6

Zechariah began his prophecy by reminding the people, the remnant, that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their forefathers. He called them to turn from their evil ways and return to him (1:1-6). The overall message of Zechariah would suggest that the remnant's specific sin was their failure to rebuild the temple. As we saw from Haggai last week, having returned to Jerusalem some time ago, they had ignored the temple reconstruction and put their own comfort and wellbeing first. God's call on Judah was to be holy and to put him first. They had sinned by not doing that – by being just like the nations around them.

1. 스가랴 1-6 장

스가랴는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매우 진노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1:1-6). 스가랴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남은 자들의 구체적인 죄가 성전 재건축에 실패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난 주 학개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들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성전 재건축은 제쳐놓고 그들 자신의 안락함과 안위를 우선시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그러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똑같아진 것에 있습니다.

Chapters 1-6 consist of 8 visions given by God to Zechariah at night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eleventh month, the month of Shebat,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1:7). The visions in this section relate to the building of the temple. In summary, the message is that God will return to Jerusalem with mercy and his house, the temple, will be rebuilt. The chosen leaders to accomplish this are Joshua the high priest and Zerubbabel, from the line of David, the governor of Judah, whom we met in Haggai last week. God promises to equip them for the role, first by making Joshua clean: "Now Joshua was dressed in filthy clothes as he stood before the angel. The angel said to those who were standing before him, "Take off his filthy clothes". Then he said to Joshua, "See, I have taken away your sin, and I will put rich garments on you" (3:3-4). This symbolic cleansing of the sin of the people points forward to the coming of the Branch – the promised Messiah – who will remove the sin of his people "in a single day", surely Good Friday (3:8-9). Second God will equip Zerubbabel for the work of rebuilding by giving him the Spirit: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o Zerubbabel: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Almighty" (4:6). These 2 gifts – cleansing from sin and the Holy Spirit – are the heart of God's salvation in Jesus Christ, aren't they?

1-6 장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 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이십사일" 밤에 스가랴에게 주신 8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문에 묘사된 환상은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것이며 그의 집,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선택된 지도자가 우리가 지난 주에 학개에서 보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의 혈통인 유다의 통치자,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3:3-4).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 상징적인 정화는 앞으로 오실 나뭇가지 –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는 "하루에", 즉 성 금요일 (Good Friday)에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Zechariah 3:1-10; 4:1-14; 9:9-17; 14:1-9; Matthew 21:1-11)

(3:8-9). 둘째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축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4:6). 이 두 가지 선물은 – 죄 씻김과 성령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here are several applications to come from this first part of Zechariah. First, as we do God's work obediently, we can be sure that he will deal decisively with those who oppose him. Zechariah's second vision (1:18-21) concerns 4 horns which are scattered by 4 craftsmen. In apocalyptic literature, horns represent powers – in the context of this book, the powers that are keeping the people from rebuilding the temple. When the craftsmen get on with the job of rebuilding the temple, the opposition is scattered. Satan will always try to stop God's people from doing God's work – I'm sure many of you have experienced that! Satan knows that when God's people work obediently his evil forces are scattered. Remember that the devil's power rests in our inactivity so be careful not to be distracted from the work God has given you.

스가라의 이 첫 장에서 적용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반대하는 자들을 결연히 다루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스가라의 두 번째 환상은 (1:18-21) 4 명의 대장장이가 흩뜨려 놓은 4 개의 뿔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 문학에서 뿔은 권력을 나타냅니다 – 스가라에서는, 사람들을 성전의 재건축으로부터 막고 있는 권력을 나타냅니다. 대장장이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진행시킬 때, 그 적들이 흩어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으로 일할 때 그의 악한 세력이 흩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활동하지 않을 때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로부터 방해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Second,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despise the day of small things (4:10). Some people thought that the work on the temple was in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the size and grandeur of Solomon's temple. Zechariah stresses, as did Haggai, that although this temple would not be as magnificent as the first one, yet it would be the place where Zion's long awaited King would come, inhabited by God himself. Great events in God's kingdom come about as God's people are faithful in building from the foundation up. From little things big things grow, as the advertisement of one of the big superannuation funds reminds us. God's kingdom will be big! It will take in the whole world! But, in the meantime, we must not despise the day of small things. Many people want to be part of something big. It is why big churches attract more people. But if, for example, people were willing to look beyond big high profile ministries and commit their spiritual gifts, their talents, their energies to small struggling churches, or to often slow and difficult cross cultural work, or to mission fields that have proved hard to evangelize, they would demonstrate a grasp of what Zechariah is speaking about. Are you prepared to do that?

둘째로,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4:10).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작업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그 위용에 비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개가 그러했듯이, 스가라는 비록 이 성전이 첫 번째 것만큼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온의 왕께서 오시어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곳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신실하게 그 기초부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왕국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 광고 중 하나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보잘것없는 일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큰 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 사람들이 크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역 그 너머를 보고, 작고 어려운 교회에, 혹은 느리고 어려운 다문화 사역에,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선교 대상지에 기꺼이 그들의 영적 은사, 재능, 에너지를 바치고자 한다면, 그들은 스가라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Third, when God moves in, sin must move out. With God in their midst the people must be pure. This is the simple message and application of the two visions in Zechariah 5 – the vision of the flying scroll and the vision of the woman in a measuring basket. Indeed, in the final verse of chapter 5, God banishes sin from his people by sending it to Babylon (5:11). The grace of God in Chris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Titus 2:11-12). God is purifying us as his very own people.

셋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죄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 백성들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이며 스가라 5 장에 나오는 두 환상 –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바구니 속 여인에 대한

(Zechariah 3:1-10; 4:1-14; 9:9-17; 14:1-9; Matthew 21:1-11)

환상의 적용입니다. 실로, 5 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죄를 쫓아내어 바빌론으로 보냅니다 (5:1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합니다 (디도서 2:11-12).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2. Zechariah chapters 7-14

The second part of Zechariah takes place 2 years later, in the fourth year of Darius. Work on the temple was progressing well. People had been fasting regularly for the temple to be built but now that work was well under way, they wondered whether they needed to continue fasting. The people of Bethel sent a delegation to Zechariah asking if they should keep fasting. Zechariah's answer from the Lord comes in 4 parts. In 7:4-7, he asks the people, “When you fasted was it really for me? Was it not for yourselves?” and then he goes on in 7:8-14 to point out that the “fast” God requires is not to abstain from food, but from sin. We are reminded that religion that impresses God is inward, not outward. God sees and knows our heart – that is what he is concerned with. God was unimpressed with the fasting of the people of Bethel for the temple, because it was not primarily for him, but for themselves. He did not want them to stop eating, but to start living rightly – to honour and please him. Outward displays or traditions are not necessarily wrong but need to be regularly evaluated, because over time, they can tend to be carried out from habit rather than from a commitment to what God really requires. Chapter 8:1-17 is made up of 7 short oracles all introduced by the phrase,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Each oracle speaks of ways in which God is going to transform Jerusalem by his presence – “I will return to Zion and dwell in Jerusalem. Then Jerusalem will be called the City of Truth, and the mountain of the Lord Almighty will be called the Holy Mountain” (8:3). Finally, in 8:18-23, Zechariah returns to the original question about fasting and points out that the fasting times will be replaced by glad and happy festivals. The pilgrims coming to ask about fasts will be replaced by pilgrim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have heard that God dwells in Zion with his people.

2. 스가랴 7-14 장

스가랴 서의 2 부는 다리우스 황제 4 년인, 2 년 후에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건축 작업이 잘 진행되자 그들은 금식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벤엘 사람들은 스가랴에게 대표단을 보내어 그들이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답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7:4-7 에서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계속해서 7:8-14 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금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표면상의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또한 아십니다 –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 금식하는 벤엘 사람들에게 감명받지 않으셨고, 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올바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전통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헌신에서라기 보다 그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8-17 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7 개의 짧은 신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신탁은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8:3). 마지막으로, 8:18-23 에서 스가랴는 금식에 관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금식 기간이 기쁨과 행복의 절기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에 관해 물어보러 온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시온에서 거하신다는 것을 들은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The book concludes with two important oracles (9:1-14:21). The first oracle (Zechariah 9-11) focuses on the leadership of the renewed nation. After listing the surrounding nations opposed to God's people, such as the Arameans and Philistines, God assures them that if they look to him (9:1) in the midst of oppression he will care for them, because his eye is on them (9:8). Not only will God watch over his renewed people – he will also send his king to them (9:9). Unlike the normal king of the day who came riding a war-horse, this king will come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The image of Zion's King arriving on donkey (a lowly animal of peace) makes it clear that the Davidic king will not come as a military figure with violence and bloodshed, but rather with righteousness and salvation. The only blood that is shed will be his own (12:10ff). Matthew quotes Zechariah 9:9 as being fulfilled by Jesu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on what we now celebrate as Palm Sunday (the

(Zechariah 3:1-10; 4:1-14; 9:9-17; 14:1-9; Matthew 21:1-11)

Sunday before Easter) (Matthew 21:1-5).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of Jesus' day were blind to this dominant picture in Zechariah. They expected the Davidic king to come on his war-hors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with violence rather than gentleness and sacrifice. The benefits of submitting to Zion's King are set out in 9:11-17. He will bring peace to the nations (v.10), free the prisoners (v.11), shield his people from attack and cause them to sparkle like jewels in his crown (v.16).

스가라는 두 중요한 신탁으로 끝을 맺습니다 (9:1-14:21). 첫 번째 신탁은 (스가라 9-11) 새로워진 국가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람인과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주변 국가들을 나열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억압받는 가운데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9:1) 그들을 돌보실 것임을 확실히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친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9:8). 하나님은 거둬난 백성들을 살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9:9). 군마를 타고 오던 그 시대의 보통 왕과 달리, 이 왕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나귀 (화평의 미천한 동물)를 타고 오는 시온의 왕의 이미지는 다윗의 왕이 폭력과 유혈로 얼룩진 군사적 인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구원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홀리게 될 유일한 피는 그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12:10ff). 마태는 스가라 9:9 이 우리가 현재 종려 주일 (부활절 전 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었다고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1:1-5). 예수 시대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스가라에 기록된 이 두드러진 그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이 겸손함과 희생 보다는 폭력으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군마를 타고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온의 왕에게 복종하는 것의 이로운 점들이 9:11-17 에 나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10 절), 갇힌 자들을 놓아줄 것이며 (11 절),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호위하시어 그의 왕관의 보석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16 절).

The problem of leadership is brought into even sharper focus in chapters 10 and 11. The Lord God is angry with the shepherds of Israel because they are false. As a result “the people wander like sheep oppressed for lack of a shepherd” (10:2). In response to his people's needs God promises to raise up a leader from Judah. The remainder of chapter 10 is full of expressions introduced by the phrase “I will”, as God outlines his provision for them. The New Testament demonstrates the fulfilment of this, doesn't it, as we see Jesus the Good Shepherd, having compassion on the people,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tthew 9:36)?

리더십의 문제는 10 장과 11 장에서 보다 날카로운 초점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거짓된 것에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합니다” (10:2). 그 백성들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유다에서 리더를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10 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들을 서술하시면서, “I will”로 시작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신약은 이들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36).

Judah's response to God's leadership is prophesied in chapter 11. In vv.4-14 Zechariah is called to play the part of a good shepherd and portray events to be fulfilled in the coming rejection of the Messiah, the Lord Jesus Christ. He is to serve the people, be rejected by them, and then abandon them to the consequences of that rejection for a time. Then in vv.15-17 Zechariah is to assume the role of a wicked shepherd in anticipation of an additional judgment upon the nation.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11 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4-14 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라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성취될 사건들을 그리도록 이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이며, 그들이 그 거절의 결과를 감당하도록 한동안 내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17 절에서 스가라는 이방국가에 닥칠 추가적인 심판을 기대하며 못된 목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The second and final oracle integrates the book's complex prophecies. The book ends with people from all nations coming to Jerusalem to worship the Lord Almighty – but since not all will worship willingly, war needs to precede this coming together in worship. Zechariah 12 and 13 deal with God's relationship with his own people, whereas Zechariah 14 deals with hi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The oracle begins by stressing that Israel's God is the God who is the Creator, and as the oracle proceeds, it is clear he is also the God who will recreate his people. This process will involve him judging the nations that have opposed Jerusalem and also giving Israel the grace to mourn for the way they have treated the Lord by piercing him. Their tears will lead to a fountain of forgiveness – “On that day a fountain will be opened.....to cleanse them from sin and impurity” (13:1) and the renewal of the people, which finds its ultimate expression in 13:9 – “They will call on my name and I will answer

(Zechariah 3:1-10; 4:1-14; 9:9-17; 14:1-9; Matthew 21:1-11)

them; I will say, "They are my people" and they will say, "The Lord is our God"". They will be restored to proper covenant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ir God.

두 번째와 마지막 신탁은 스가랴의 복잡한 예언들을 통합시킵니다. 이 예언서는 전능하신 주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로 끝이 납니다 – 하지만 모두가 기꺼이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12 장과 13 장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스가랴 14 장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 신탁이 이어지면서, 그가 그의 백성들을 다시 창조할 하나님이기도 하심이 분명해집니다. 이 과정은 예루살렘에 대적했던 이방국가들을 심판하고, 못박음으로 주 예수를 대한 그 방식에 대해 슬퍼할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용서의 샘으로 – “그 날에 죄와 두려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3:1) - 그리고 13:9 에 가장 잘 표현된 새로워진 백성들로 –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의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Zechariah 14 pictures the final battle in which God stamps his supremacy on the nations. They will gather for war against Jerusalem but he will rescue his people. The Mount of Olives will be split in two (recalling the parting of the Red Sea) so that his people can escape. Then the Lord Almighty will come and usher in a day of never-ending light (perfection). Jerusalem will be established as the source of living water – that is, blessing – for the world. And so “the Lord will be King over the whole earth. On that day there will be one Lord, and his name the only name” (14:9). Given the absolute certainty that the day is coming – the Day of the Lord – when God will be king of the whole earth, surely it is ultimate foolishness not to bow the knee to God’s rule – to receive his gracious offer of salvation in Jesus and to live under the lordship of King Jesus. Zechariah makes clear the enormous implications of such folly. Those who do not bow the knee will come under God’s judgment: their flesh will rot while they are still standing (14:12), the lands that do not submit will have no rain (14:17). But those who do submit will “sparkle in his land like jewels in a crown.....attractive and beautiful” (9:16-17). 스가랴 14 장은 하나님이 이방국가들에 대한 절대적 통치에 도장을 찍는 최후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감람산이 둘로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재현하는) 그의 백성들은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어 결코 꺼지지 않는 빛 (완벽함)의 날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생수의 근원 – 즉, 축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14:9). 하나님이 전 세계의 왕이 되실 그 날 – 여호와의 날 – 이 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받아들이고 왕 되신 주 예수 하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 절대적인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엄청난 결과를 분명히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 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14:2),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4:9). 그러나 복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도다.....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9:16-17).

The movement of this last oracle makes it clear that God’s purpose in all his interventions in history is that the world might be consecrated to him, and worship him as it should. As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of the Shorter Catechism tell us, “The chief end of man (and of the worl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This is expressed in 14:16 where Zechariah prophesies: “Then the survivors from all the nations that have attacked Jerusalem will go up year after year to worship the King, the Lord Almighty, and to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s”. Our happiness and fulfilment are only complete when God brings us to worship him – which is the goal of our salvation in Jesus Christ. Let us embrace that salvation with joy!

이 마지막 신탁의 움직임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모든 일에 있어 그 목적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소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사람의 (그리고 이 세상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14:16 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의 행복과 성취는 오로지 하나님께로의 경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완전해집니다 –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그 구원을 끌어안도록 합시다! 아멘.